

지역 소식통



부안군 행안면, 논콩·썩재배 6차 산업 활성화 기술교육

부안군 행안면(면장 김남철)이 논콩·썩 재배 6차 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13일 행안면 회의실에서 논콩·썩 재배농가와 면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행안면 논콩선도농가, 썩 선도농가와 김제시 축산농업농조합법인 의 성공사례와 재배여건 및 기술교육을 통하여 신규 고소득 작목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의에 나선 3명의 선도농가는 쌀생산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논에 벼만 재배하려 하지 말고 벼보다 소득이 많은 콩과 썩을 재배할 것을 강조하며 새로운 작목 재배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도전을 할 것을 주문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행안면에서는 신규 소득작목의 재배면적 확대를 통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이용하여 매주·원장·간장 등을 생산하고, 특히 썩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삶은썩·썩떡,썩차·썩두부 등 가공 판매하며, 썩개기 및 썩두부·썩떡만들기 체험을 한다면 생산과 가공은 물론 체험까지 가능한 6차산업이라며 행안면 농업발전을 위해 다함께 나서자고 다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월동, 문화누리카드사업 신청 순항

김제시교월동(동장 김태환)이 소외계층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신청이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6세 이상(2011. 12. 31.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및 영화, 스포츠 관람과 서점 사적권 놀이공원, 철도, 고속버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대비 1만원이 상향된 금액으로 4인 가족 기준 연간 24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다.

기존 수혜대상자의 경우 신분증과 발급받은 카드를 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충전후 재사용이 가능하며 신규 대상자 및 카드 분실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 기업

아시아종묘, 전미주품종상 획득

‘골드인골드’ 컬러수박 품종 개발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유치한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입주한 기업 아시아종묘(주)는 지난 2일 ‘골드인골드’ 컬러수박 품종을 새롭게 개발하여 전미주품종상(AAS)을 획득하여 세계종자시장을 석권한 미국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아시아 종묘 AAS 수상은 2015년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유된 보라색계 소형무 ‘스위트베이버’와 잎이 적자색을 띠는 웰빙채소로 성장속도가 빠른 레드킹덤 등 채소종자 2개 품종을 동시에 수상한 이후 두 번째이며, 국

내에서 AAS상을 받은 종자회사는 현재까지 아시아종묘(주)뿐이다. AAS상은 북미시장에 경쟁력 있고 앞서 나가는 씨앗 품종을 개발하고 소개한다는 취지로 1982년에 설립된 단체로, 1983년부터는 매년 출품작을 선정하고 모집하여 직접 시고를 거친 뒤, 대학교수, 전문육종가, 전문재배 농가 농업종자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뒤 AAS 수상작을 발표하여 북미시장의 경쟁력 있는 농민들에게 추천하게 된다.

아시아종묘 김제 육종연구소 박상민

소장은 “골드인 골드의 AAS 의 획득은 미국시장에서 재배 안정성을 인정 받았다는 의미로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재배한 결과 적응성 시험을 통과한 검증된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비탕색은 흰색에 가깝고 줄무늬가 있고 속은 빨간 크림슨계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에 색감의 상품성을 주목하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2009년 정부가 육성대행 발표로 김제시가 2011년 유치하여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일원에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을 완료하여 종자육종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종규 부안군수, 국가안전대진단 현장행정

고부천 유역 홍수방지 대책사업 안전점검 실시

김종규 부안군수가 고부천 유역 홍수방지 대책사업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현장행정을 진행하고 매년 반복된 고부천 주변의 홍수방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13일 실시했다.

고부 천은 유역면적이 245.5km² 총연장 16.2km에 달하는 하천으로 전북 정읍과 고창, 부안을 가로지르는 하천으로 유역인구가 3만 4200명이다.

고부 천은 매년 홍수로 인해 많은 농경지가 침수 되는 상습침수 지대로 지난 2004년에는 1584ha, 2005년에는 4500ha, 2011년에는 3540ha가 침수되는 등 지금까지 수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고부천 유역 홍수방지 사업은 정읍시 고부면 신흥리에서 부안군 동진면 장동리에 이르는 총연장 15.15km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845억 원을 투입해 하강천 폭 확장과 교량신설, 하강배수갑문 확장 양수장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농작물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3만 4000여 농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교량 16개소가 신설돼 주변 농가들의 진입이 수월해지고 배수갑문과 양수장이 신설돼 농업용수 이용이 쉬울 전망이다.

김종규 군수는 이날 현장행정에서 “최근 엘 리노 등의 영향으로 기상이

변이 발생해 시간당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인력으로 막을 수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는 만큼 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단 한 농가도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시기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본격 추진

정읍시가 24억천만원을 들여 시기동 201-1번지 일원(구보전소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천㎡ 규모의 시기동 복합주민센터(이하 복합주민센터)를 건립한다.

시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복합주민센터는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결합한 것이다.

주민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1층에는 민원실과 사무실 등이 들어서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담당할 2층에는 체력 단련실과 프로그램실 등이 조성된다 또한 3층에는 다목적 강당이 들어서 회의실과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완공되면 시기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복합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그간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 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했다. 시는 복합주민센터 건립은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걸쳐 올해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수성·상교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 선정

정읍시 수성작은도서관과 상교작은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7 ‘문화가 있는 날’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작은 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수성작은도서관과 상교작은도서관은 이달부터 11월 까지 총 7회에 걸쳐 문체부가 파견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달 프로그램은 3월 29일 수요일 오후 6시에 수성작은도서관에

서 윤미숙 동화작가(소리 공책의 비밀)와 함께하는 글쓰기 뽀롱뽀롱 이야기 향기가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상교작은도서관도 같은 시간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기타 연주 가인 송기영씨와 함께 하는 ‘클래식 기타 타고 세계일주 음악여행’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클래식 기타 연주를 감상하고 여러 나라 음악에 대한 설명도 이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 작은도서관의 질 높은 문화프로그램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즐기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이 보다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 화장률 78%... 전 연령층 화장 선호

전북 4개 시군(정읍,김제,부안,고창)의 공동참여로 설치된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어 공설 화장시설이 전혀 없는 김제시의 화장시설 공동참여의 의미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김제시는 전북 평균 화장률 73.5% 보다 높은 78%의 화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 6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 연령층에서 장사방법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김제시가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에 참여한 16. 4. 1부터 17. 1. 31까지 10개월간 김제시민의 화장시설 이용은 총 이용건수 4,044건 중 22%(911건)로 관내 화장시설로

를 적용하여 약 2억원의 장례비용 절감 혜택을 보였다.

한편 서남권 추모공원내에는 화장시설 뿐 아니라 봉안당과 자연장지, 유해동산이 함께 설치되어 있으나 김제시민은 화장시설만 관내 사용료를 적용받고 있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중 일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금년에는 윤달이 속해 있어 기존 분묘의 개장과 함께 화장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화장 후 안치 할 수 있는 김제시 공설 자연장지 및 봉안당 설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돌발해충 방제 ‘당부’

올해도 과수원에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방제 활동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갈색날개매미충은 매미목 큰날개매미충과에 속하는 해충으로, 성충은 암갈색이며 몸길이가 8.2~8.7mm이다.

약충은 몸길이가 약 4.5mm로 향문을 중심으로 흰색 또는 노란색 밀랍물질을 형성 한다.

연히 발생하며, 알로 월동하였다가 5월 중 하순에 부화하여 80일 후 성충으로 우화한다.

전북도 내에서는 지난 2007년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정읍에서는 산간부쪽에서 일부 발생되고 있다.

방제를 위해서는 과수 가지에 싹이 나오기 전에 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 500배액을 처리하거나, 싹트기 7일전까지 기계유유제 16배로 방제를 해야 한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정읍지역에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의 월동간 조사를 실시하고, 새해영농실용화교육과 품목별연회 회의 모임 시 방제교육을 실시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 Wine featuring Mulberry Wine and various gift sets. The ad includ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boxe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describes the quality and availability of the wine,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Gangsan Wine.